

# '22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12.14	회의실	9/12	4	1	14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고아라·김영신·송경용·심상돈·오광호·이상길·임동훈·조경완·최정욱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황한영(경영인프라본부장), 윤행석(콘텐츠본부장), 윤근수(시사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9	3	0	0	12	0	12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2	0	0	12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복합쇼핑몰 등 시민의 관심사 다뤄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상업용지 면적 논란(2023.1.10), 이제는 순항할까?(12.27), <뉴스투데이> 광주시, 스타필드 건립·백화점 확장 논의(1.16) 등 방송 조치	'22.12.
"	풍암호 수질개선 방안 관심 필요	-<시사온> 풍암호 수질 개선 해법은(12.9) 등 방송 조치	"
"	여성, 청년 실업 등 관련해 정치 논리가 아닌 미래 지향적일 수 있도록 관심 바람	-<뉴스데스크> 출산율 높아졌다고 자랑하더니(2023.1.3.), 취약계층 청년들에 해외유학 지원(12.30),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창의적 인재 캠페인 송출(2023.1) 등 방송 조치	"
"	<시사온>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패널 섭외 신중 필요	-시사보도 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비인기 의료 진료과에 관한 관심 필요	-<뉴스데스크> 위기의 지방대 지원자 0명인 학과도(2023.1.9), SB시간대에 <1분 건강정보> 등 방송 조치	"
"	<시사온> 적절한 제목 선정 필요	-시사보도 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시사온> 광주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 아쉬움	-시사보도 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뉴스특보 등 생방송 시 자연스러운 연결 등 순발력 필요	-시사보도 책임자, 담당 기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교양	<본방을 보자> 중인 노래방, 참가자들의 배경화면이 시청에 편안할 수 있도록 관심 필요	-편성 책임자 및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	"
"	<본방을 보자> 마한유적체험관 소개 시 참여 방법 등 정보 부족 아쉬움	-편성 책임자 및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	"
"	<본방을 보자> 풍부하지 못한 자료화면 아쉬움	-편성 책임자 및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	"
총 건수		11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보도	복합쇼핑몰 등 시민의 관심사 다뤄주길 바람	대통령 선거 당시 이슈가 됐을 때 복합쇼핑몰 문제를 수차례 뉴스 아이템으로 다뤘으며, 어등 산관광단지나 전방 일방 부지 활용 관련해서 복합쇼핑몰 문제를 아이템으로 꾸준히 처리할 예정임	○		
〃	풍암호 수질개선 방안 관심 필	풍암호 수질개선 방안 관련해서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요	뉴스데스크 아이템 처리하였으며, <시사온>에서도 관련 사항을 다루긴 했지만, 시민 관심사인 만큼 지속해서 아이템 발굴할 예정임			
"	여성, 청년 실업 등 관련해 정치 논리가 아닌 미래 지향적일 수 있도록 관심 바람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해외 유학 지원 등 정책을 소개하고 광주시가 여성 청년 정책을 꼼꼼히 설계하도록 관련 보도를 이어갈 예정임	○		
"	<시사온>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패널 섭외 신중 필요	<시사온>에 출연하는 패널을 선정할 때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벗어나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패널 풀을 확대할 예정임	○		
"	비인기 의료 진료과에 관한 관심 필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련 아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관심 필요	한국에너지공대가 명실공히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연구인력들의 성과를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음. <시사온>을 통해 에너지공대 관련 토론을 준비할 예정임	○		
"	<시사온> 적절한 제목 선정 필요	풍암호수는 원형보존으로 수질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으로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을 제목에 반영한 것이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함. <시사온> 제목 선정에 더 진지한 노력을 하겠음	○		
"	<시사온> 광주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 아쉬움	<시사온>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고 한정된 시간에 논의를 하다 보니 심도 있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토론의 깊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 용	참 고	반 론
		이를 더할 수 있도록 회차를 나누어 아이템을 세분화하는 노력을 하겠음			
"	뉴스특보 등 생방송 시 자연스러운 연결 등 순발력 필요	기록적인 폭설 상황에 재난방송, 뉴스특보를 처리하였음.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성도 높은 재난방송을 지속해서 준비하고 있음	○		
교양	<본방을 보자> 줌인 노래방, 참가자들의 배경화면이 시청에 편안할 수 있도록 관심 필요	지적사항 제작진에 전달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음	○		
"	<본방을 보자> 마한유적체험관 소개 시 참여 방법 등 정보 부족 아쉬움	좀 더 상세한 정보제공이 되도록 하겠음	○		
"	<본방을 보자> 풍부하지 못한 자료화면 아쉬움	많은 자료화면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2년 12월)

일 시		2022. 12. 14. 수. 오후 5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고아라, 김영신, 송경용, 심상돈, 오광호, 이상길, 임동훈, 조경완, 최정욱(9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윤근수 시사보도본부장, 황한영 경영인프라본부장(4명)		

##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2022년을 정리하는 12월 시청자위원회다. 지난달에는 송경용 위원께서 준비를 잘해주셔서 동신대에서 시간을 가졌다.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제시는 성실하신 위원님들 잘 해주셨다.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 참석해주셔서 고맙다. 성원이 됐으니 사장님 인사를 듣고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조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청자위원님 감사드린다. 올해 마지막 시청자위원회다. 덕분에 지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시청자위원회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린다.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업무보고를 하겠다. 특집 제작이 몇 편 있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을 영상기자협회와 5.18민주광장에서 생중계 잘 마쳤다. 광주MBC 소통 프로젝트로 지자체 단체장 아홉 분을 했고 한 분을 남겨놓고 있다. 광주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로 광주광역시와 함께 한 광주와 페스티벌은 이번 주 목요일에 마지막 방송을 한다. 부산 대구 대전 등 계열사에서도 편성했다. <풍류달빛공연> 녹화방송을 했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 스토어 <맛보장 남도>는 세 번을 했고, 세 번을 더 하게 된다. 숏폼 다큐 <오늘도 출근>이 전국MBC계열사TV작품경연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다. 올해 남은 계획으로는 다큐멘터리 <마한>를 12월에 방송 예정이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김치 소재의 <레드디쉬>도 12월, 1월, 2월 네 편 방송이 예정돼 있다. <솔로하우스>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 영산강 캠페인은 내년에도 지속하고, 사업적인 부분과 함께해 내년에 선보일 수 있겠다.
- 윤근수 시사보도본부장 : -창사특집 대토론 <영산강이 미래입니다>를 방송했다. 연중캠페인과 더불어서 영산강의 가치를 재조명해보자는 취지였고, 광주 전남 상생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토론회였다. 광주는 내년 3월이면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상 최악의 가뭄에 관해 캠페인성 보도를 해오고 있다. 더불어 기후 변화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5.18 다큐멘터리 <나를 찾아줘>가 광주·전남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을 받았고, 지지부진 곡성 산사태 수사는 광주·전남민주언론상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목포·여수MBC 3사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고, 빛가람 혁신도시 및 시군 뉴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 조경완 위원장 :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 고아라 위원 : -<문화콘서트 난장> 11월 17일 연주자 스페셜 방송을 봤다. 계절과 잘 어울리는 전체적인 선곡 및 밴드들의 섭외가 좋았다. 라벤타나, 박주원 등 네임 밸류 있는 아티스트 섭외도 시청자의 눈길을 잡았다. 팀마다 밀도 있는 편곡과 음향이 훌륭했다. 이번 회차는 한 시간 내내 눈과 귀가 행복했다.  
-<테마기행 길>에서는 광주에 살고 있지만 가보지 못한 곳곳을 화면으로 보니 우리 광주가 이렇게 볼 곳이 많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광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광주의 이야기를 들려줄 좋은 기회가 되었을 거로 생각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늘 가까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사뭇 복잡하고 세부 공간들에 대해 알기 어려웠는데 곳곳에 대한 설명이 유익했다. 그 외에도 맛집, 여행안내 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 대한 소개도 좋았다.
- 박선희 부위원장 : -<시사온>-12월 2일 방송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인 집단 운송거부 등 민감한 문제를 주제만 언급하여 아쉬웠다. 광주시 현안인 군 공항 이전은 오랫동안 거론하고 다루어 왔는데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거론한 지적이 좋았다. 앞으로도 방송에서 계속 다루시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광주시민의 관심사인 복합쇼핑몰도 <시사온>에서 계속 다뤄 주셨으면 한

다.

-<본방을 보자> 12월 8일 뉴스본방에서 작가 소개 때 책만 보여준 것보다는 작가 얼굴과 저서도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웠다. 12월 9일 뉴스본방에서 풍암호 수질 개선방안은 주민들 원한 방향으로 보존하고 개선 방향을 연구하면 좋을 듯하다. 방송에서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한다. 줌인 노래방에서 동구청장을 사수로 참여하신 아이디어 신선했으며 노래도 잘하셔서 손뼉 쳐주고 싶었다. 그런데 두 분 사수 분들이 노래 부른 동안 음질이 끊어진 부분 있어 아쉬웠다. 노래 부를 때 배경화면이 밝아 좋았다. 신청하신 분들의 화면조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노래 감상하는데 시각적으로도 편안하고 즐겁게 시청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한다. 12월 13일 뉴스본방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언급하면서 전 정권에서 조작이 확정된 듯한 발언은 귀에 거슬렸다. 코로나 이후 90년도 생 20대 여성 청년 실업률 72만 명, 여성 임시근로자 급증 등 극단적 선택 기준 늘어난 상황이다. 여성 청년들의 지속 가능 정책과 지원 절실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치 논리로 풀지 않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론에서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한다.

○ 김영신 위원 : -<시사온>은 광주의 지역 현안을 주제로 매주 주제를 바꾸어 가며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여 지역주민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시민들이 평소 궁금해했거나, 아니면 지역주민으로서 잘 알아야 하는데 미처 잘 알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니 매우 유익하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상 그 날 참여한 패널의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의 재미와 유익함이 결정되는 면이 있으므로 패널 설정을 잘 해야 하겠고, 이를 위해서 광주MBC가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패널의 풀을 관리하고 있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광주·전남 시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 조경완 위원장 : -패널 풀은 어떻게 하나?

○ 윤근수 시사보도본부장 :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그때 주제에 맞게 한다. 생방송이다 보니 일정이 맞지 않아 못하는 때도 있다.

○ 송경용 위원 : -빛가람 혁신도시에 16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 보니까 1년 동안 공공기관이 개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했다거나, 예산을 줄였다거나,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다시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들 부서마다 좋은 것을 선발해서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것을 했다. 방송이 16개 기관과 접촉해서 그런 것에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1년 동안 공공기관이 해온 여러 가지 일을 자체적으로 시상도 하고 평가도 한다. 그런 것을 프로그램에 녹아주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본방을 보자> 12월 6일 방송에서 완도 녀도의 일상을 직접 들어보았다. 완도는 이번 연 5월부터 제한급수가 시행되었고 하루 급수는 6일 단수로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단수 기간 사용되는 물은 다른 지역에서 지원받아 쓰고 있지만 다른 지역 또한 단수되면 이러한 단수 현상이 지속할 수 있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심각한 전남지역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모두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게끔 경험담을 자세히 말씀해주심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고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12월 7일 방송에서는 ACC 시네마테크에서 1년 반 동안 기획한 전시인 'ACC 원초적 비디오 본색'을 소개했다. 비디오테이프가 2만 7천 장이나 전시되어 있어 장르별, 배우별, 시대별, 만화영화 시리즈 등 다양하게 감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큰 사면에서 볼 수 있는 비디오 룸이나 직접 감상할 수 있는 '뷰잉룸'도 마련되어있다고 하니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영화를 비디오테이프로 보았던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전시가 기획되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추가로 비디오 추천도 해주셔서 좋았다. 전시 일정과 자세한 시간, 장소, 휴관 요일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고, 내년 2월 12일까지 전시된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고 싶다.

-광주광역시의 공유 자전거 타라게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사업에 더 이상의 예산을 들이지 말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20년부터 운영하였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70명 안팎이라고 한다. 뉴스에서 타라게의 사용률이 적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광주시 전체 인구수를 언급하여 몇 퍼센트인지 말해주면 사용률이 적다는 것을 크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자전거의 사용률이 적은 원인에 '상무지구 인근만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카카오 바이크를 뛰어넘기 힘들다'라

는 이유가 있었는데 추가로 자전거 대신 더 편리한 전동 스쿠터의 인기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

- 심상돈 위원 :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소아청소년과다. 광주에서 야간에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할 수 있는 데가 전남대병원뿐이다. 기독교병원도 못하고 있다. 인천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서 입원을 중단시켰다. 전공의 지원을 안 해서다. 그전부터 필수 중증 의료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광주·전남지역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혈관 질환에 관한 것을 다뤄보면 좋겠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들 다루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신안에 섬이 1004개라고도 하는데 섬도 많다. 광주·전남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또 뭐냐면 병원 병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대비 많다. 그런데도 이런 진료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조경완 위원장 : -의사협회 같은 데서 계속 논의를 하나? 자본의 논리를 따라가서 비인기과로 전락하는 것인가.
- 심상돈 위원 : -하고 있다. 대부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수가다. 환자를 보면 볼수록 소아청소년과는 만 들어 놓는 순간부터 계속 적자다.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다들 손 놓고 있었다. 1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
- 조경완 위원장 :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두는 것밖에 없겠다. 공공의료센터를 비롯해 공적 의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심 위원님 말씀 잘 들었다.
- 임동훈 위원 :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다 대처하기가 힘들고 복지부 내에서도 다른 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부 과를 지원해주는 게 있다. 광주·전남은 하고 있지 않다.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면 전공의 없는 과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 조경완 위원장 : -22년 시청자위원회는 의사가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의료제도 등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 오광호 위원 : -<시사온>에서 최용선 더불어민주당정책연구원장, 천하람 국민의힘혁신위원을 통해 군 공항 이전, 복합쇼핑몰 유치,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 광주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2038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스포츠 인프라 개선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순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서 좋았다. 또한, 공동유치에 대한 시청자의 찬반 의견을 실시간으로 접수하여 읽어주는 것은 생방송의 묘미를 잘 살린 것 같아 좋았다.  
-<본방을 보자>에서 2023년에 상승하는 택시요금, 도시가스, 공영주차장 사용료 등 공공요금에 대해 항목마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어서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생산·생활·무덤 등 벼농사 기반의 복합농경 유적지인 마한유적체험관 개관에 대한 소식을 알리며, 상설체험실, 교육실 등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였는데 프로그램의 일자나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도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판단된다.
- 이상길 위원 : -MBC가 월드컵에서 압도적 시청률을 보였다. 굳건하게 대한민국 언론사로 자리매김했다. 11월 8일 자 <본방을 보자>에서 동구청장이 출연해 동구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나왔다. 연말연시에는 취약계층이 즐겁고 가슴이 훈훈한 일이 있기를 바란다. 선물도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으면 한다. 두 번째는 제가 학부형인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1년이 되고 있다. 학교 시설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학생, 교수 등 상황은 어떤지 관심을 바란다. 예산문제도 있고, 아직 건물 건축 등 많은 현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광주·전남의 우수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
- 임동훈 위원 : -<시사온> “풍암호수 원형보존이나, 일부 매립이나”를 시청했다. 현재 광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중앙공원1지구 사업계획’의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풍암호수공원 조성과 수질 개선사업의 방법을 두고 논란이 심화하고 있어 매우 좋은 주제 선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내용은 풍암호수공원의 실태와 방안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만큼 매우 유익하였다. 몇 가지 느낀 점은 “풍암호수 원형보존이나, 일부 매립이나”라는 제목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문제의 본질은 과거 농업용수를 위한 인공저수지로 만들어진 풍암호수가 수십 년 전 풍암동이 개발되면서 오염문제가



발생하여 누적되어왔다. 고질적인 문제를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호수공원 재정비와 수질 개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목만 언뜻 보면 마치 개발업자가 호수를 매립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 제목을 “풍암호수공원 조성과 고질적인 수질 문제, 그 올바른 해법은?”이라고 하였다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진행자는 프로그램 시작에서 풍암호수의 탄생부터 현재의 수질 문제 그리고 논란이 되는 개발 및 수질 개선 방법까지 일련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그림이나 그래픽 등을 삽입하여 설명을 해주었다면 초반에 시청자들의 이해가 빠르고 패널들도 자신의 입장을 펴는데 훨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 같다. 3년 이상에 걸쳐서 개발업자, 시,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만든 개선탄안이 최근에 와서 호수 매립이라는 프레임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는 과정도 적절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 조경완 위원장 : -제목은 좀 더 자극적이고 시선을 끄는 제목을 붙이고 싶어하는 에디터의 고민일 것이다. 시선을 끌고 자극적으로 하는 게 언론의 현상이다.
- 최정욱 위원 : -새벽까지 MBC 방송을 보고 나왔다. 12월 7일 <본방을 보자> 방송 중 월드컵 16강 대표팀 귀국 특보를 전해주는 시간이 있었다. 뉴스특보가 부실한 내용이 잘못 편집돼서 방송된 것 같다. MBC 방송이 완성도가 높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아쉽다. 물론 생방 도중 발생한 사소한 실수지만 완성도 높은 방송을 위해서 순발력을 키워야 할 것 같다. 12월 13일 뉴스본방에서 여성 청년들 실업률 및 우울감 심각 배경화면이 근로자들의 화면이 있었는데 빵집에서 정리하는 모습, 걸레질, 면접하는 모습, 편의점 및 커피숍 알바 등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되어서 신선하지 못했다. 자료 화면 확보가 적지 않았다.  
<시사온> 12월 2일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해묵은 광주 의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뭔가 아쉬웠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했기에 심도 있게 못 하고, 정리를 못 하고 넘어갔다.
- 조경완 위원장 : -<뉴스데스크> 시그널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고발성 뉴스가 터져주면 긴장감이 있고 힘있게 느껴진다. 12월 들어서 연속 고발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서 기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 김낙곤 사장 : -많이 응원해주신 것처럼 올 한해 부족한 점도 있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내년에 더 노력하겠다고 회사가 7명 채용을 진행 중이다. 좋은 재원과 함께 잘 만들어 보답하겠다는 것 말씀드린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흑자를 달성할 것 같다. 간부들, 직원들이 엄청 노력했기 때문이다.
- 조경완 위원장 : -반년 가까이 시청자위원회를 해왔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다. 이것으로 12월 회의를 마치겠다. 끝.